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5. 12. 23.(화) 국무회의 종료 시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 윤호중 장관, 연말연시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금)부터 내년 1월 4일(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 * 성탄절(서울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서면), 타종(서울종로, 대구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아차산, 부산광안리, 울산간절곶, 강릉경포대, 여수향일암, 포항호미곶)
 - **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 파견, 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 및 상황관리 실시
-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 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 ▷ 첫째,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축제·행사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시에는 출입구와 대피로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 ▷ 둘째, 좁은 골목, 경사로, 계단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주변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 셋째,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보행 질서를 지키고, 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다른 사람을 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 넷째,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 주세요.
- ▷ 다섯째, 야외 활동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보온성이 높은 방한용품을 착용해 주세요.
- ▷ 끝으로, 행사장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삼가고, 근처에서 응급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관리요원이나 112·119에 신고해 주세요.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	책임자	과 장	박범수	(044-205-4240)
		담당자	사무관	김정근	(044-205-4248)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양기현	(044-205-5250)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62)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01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전



축제장, 공연장 등 방문 장소의
혼잡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확인해요

02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한 경우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오른쪽으로 통행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좁은 길, 비탈길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보행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위험이 느껴지면 신속하게
112 또는 119에 신고해요

03 군중 속에 갇혔을 경우



아동을 동반한 경우,
안거나 목마를 태워 보호하세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뚝을 잡아
가슴을 보호하고 심 심 공간을 확보해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머리는 두팔로 감싸고,
다리는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보호하세요



한파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기상 상황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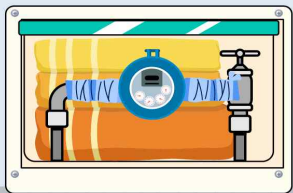
야외활동 자제



따뜻한 장소 휴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관 동파예방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